
복원력

I. 금융기관	65
II. 대외지급능력	79
III. 금융시장인프라	82

I. 금융기관

일반은행¹⁾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은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을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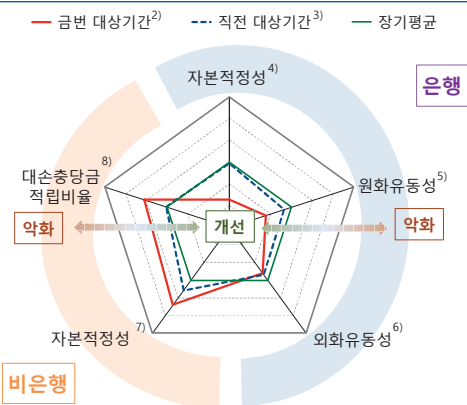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하락하였으나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이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I-1).

1. 은행

손실흡수능력 양호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각각 18.3%, 15.4%로 2022년 3/4분기말(16.7%, 14.1%) 대비 1.6%포인트, 1.3%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당기순이익 확대에 따라 자본이 증가한 데다,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표시자산의 원화환산액 감소로 위험가중자산이 축소²⁾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2023년 감독기준(10.5%, D-SIB³⁾ 11.5%)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작년 3/4분기말 대비 상승하였다.

그림 I-1. 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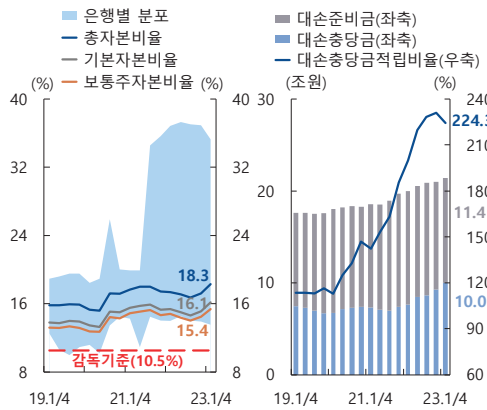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1/4분기말(원화 및 외화유동성은 23.4월말, 비은행 중 보험회사의 자본비율은 2022년 4/4분기말)
 3) 2022년 3/4분기말 4) 바젤III 기준 총자본비율
 5)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6) 외화 LCR
 7) 비은행 업권별 자본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8) 비은행 업권별(증권회사 제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자료: 한국은행 시사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2023년 1/4분기말 224.3%로 2022년 3/4분기말(228.1%) 대비 3.8%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정상 및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증가(+1.3조원)했으나 고정이하여신도 상당폭 증가(+0.7조원)했기 때문이다(그림 I-2, 그림 I-3).

1) 금융안정보고서의 은행부문은 일반은행(시중·지방 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영업모델이 상이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및 수협 은행)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된다.
 2) 일반은행의 총자본은 2022년 3/4분기말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위험가중자산은 7.2% 축소되었다.
 3)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로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및 우리은행(우리지주)이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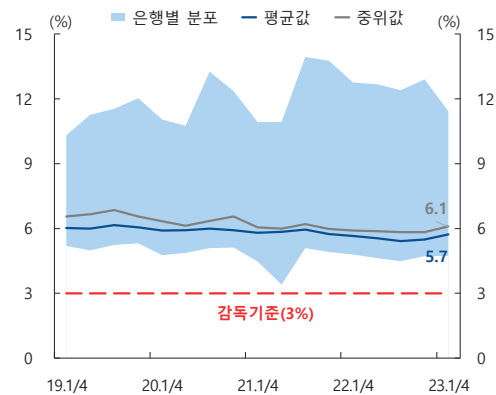
그림 I-2. 일반은행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¹⁾²³⁾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¹⁾²⁾



주: 1) 기말 기준
 2)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2016년 3/4분기까지는 대손충당금에 대손준비금 포함, 그 이후에는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3) 2023년 규제기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D-SIB의 경우 각각 8%, 9.5%, 11.5%)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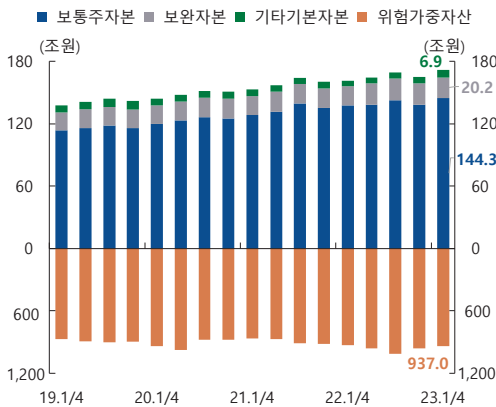
일반은행의 레버리지비율⁴⁾은 2023년 1/4분기말 5.7%로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3%)을 크게 상회한 가운데, 당기순이익 확대에 따른 자본 증가 및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환산 총익스포저 감소 등의 영향으로 3/4분기말에 비해서는 0.3%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4).

그림 I-4. 일반은행 레버리지비율¹⁾²⁾



주: 1)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총익스포저. 기말 기준
 2) 2017년까지는 보조지표, 2018년부터 규제 시행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I-3. 자기자본비율 변동 요인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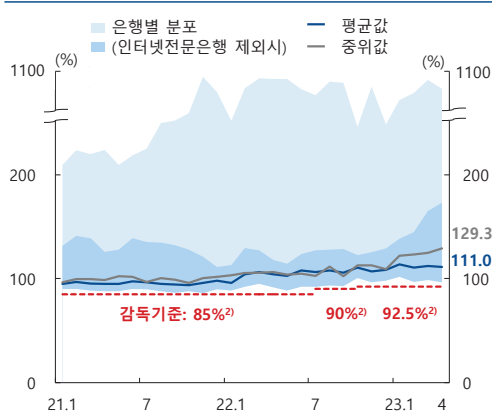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2) 2016년 4/4분기 이후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4)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업감독규정」상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의미하며, 은행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사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비율은 총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에 기반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4분기부터 보조지표로 공시된 후 2018년부터 동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되었다.

유동성 대응능력 대체로 양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⁵⁾은 2023년 4월중 111.0%로 2022년 9월(106.1%) 대비 4.9%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⁶⁾ 등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은행들이 LCR 규제비율 정상화 및 자금조달시장 불안 위험에 대비하여 정기예금 유치 및 국고채 매입을 확대⁷⁾함에 따라 고유동성자산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22년 10월~23년 6월 92.5%)을 상회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의 경우 규제완화 전 감독기준(100%)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그림 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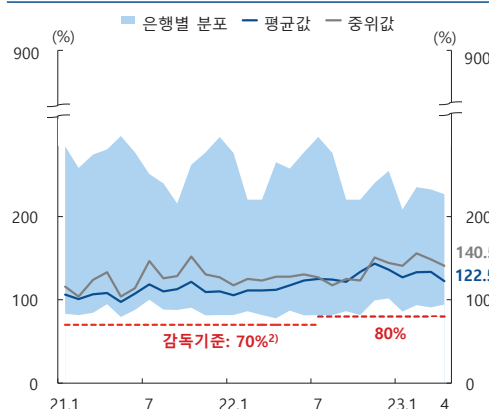
그림 I-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⁸⁾



주: 1) 고유동성자산(월 평잔)/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2) 2020년 4월~2022년 6월중 85%, 7~9월 90%, 10월~2023년 6월중 92.5%를 한시적으로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외화 LCR⁸⁾은 2023년 4월중 122.5%로 2022년 9월(121.7%) 대비 0.8%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80%)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I-6).

그림 I-6. 일반은행 외화 LCR⁹⁾



주: 1) 고유동성 외화자산(월 평잔)/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2) 2020년 4월~2022년 6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장기적 측면에서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⁹⁾(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2023년 1/4분기말 112.2%로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100%)을 충족하였다(표 I-1).

5)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으로 계산되며 분자인 고유동성자산은 월중 평잔 기준이다.
 6) 2022년 10월 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 매매 대상증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다.
 7) 일반은행의 국고채권 잔액은 2022년 9월 69.4조원에서 2023년 4월 77.2조원으로 7.8조원 증가하였으며 정기예금 잔액은 2022년 9월 742.0조원에서 2023년 4월 798.6조원으로 56.6조원 증가하였다.
 8) 외화 LCR은 바젤III 규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실물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식 규제도 도입되었다(규제기준 80%). 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은행(광주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다.
 9) NSFR은 은행들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하여 장기 운용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부채 및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규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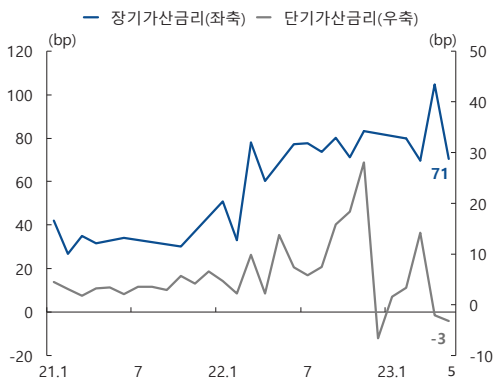
표 I-1. 일반은행 NSFR¹⁾²⁾

	2021년			2022년			2023년	
	2/4	3/4	4/4	1/4	2/4	3/4	4/4	1/4
평균	111.7	110.1	111.2	108.9	108.2	108.2	111.9	112.2
중위값	109.6	106.9	109.2	107.7	107.7	106.6	109.7	108.6

주: 1) 가용안정자금조달금액/필요안정자금조달금액. 기말 기준
2) 감독기준은 100%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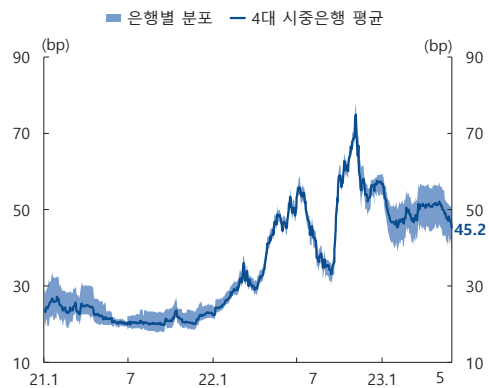
대외 외화조달 여건 개선

2022년중 미 연준 긴축 강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유동성 축소 우려, 홍콩생명 사태 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던 단기 및 장기 외화차입 가산금리가 2023년 중에는 모두 하락하는 등 일반은행의 대외 외화조달 여건은 상당폭 개선되었다. 특히 단기 가산금리의 경우 2023년 3월중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및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로 인한 은행 불안 심리 확산 등으로 재상승하였으나 4월 이후 미 연준 등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영향으로 빠르게 하락하였다(그림 I-7).

그림 I-7.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¹⁾²⁾³⁾

주: 1) 22.3월 이전은 LIBOR 기준 가산금리, 22.4월 이후는 SOFR 기준 가산금리(국민, 신한, 우리 및 KEB하나은행의 미 달러화 차입금액 가중평균)
2) 국내 금융기관 차입 및 본지점 차입 당일콜ON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3) 장기 가산금리 중 21년 5월, 7-9월, 11-12월, 22년 12월 및 23년 1월은 차입실적 부재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의 CDS 프리미엄도 작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2021년(연중 평균 22bp)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2016~19년중)인 65bp 대비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또한 금년 3월중 SVB·CS 사태 이후에도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8).

그림 I-8 일반은행¹⁾ CDS 프리미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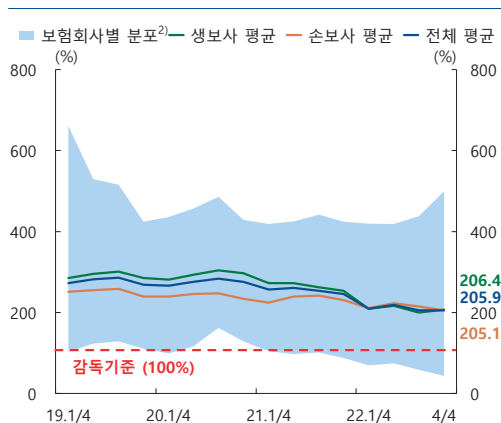
주: 1) 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 은행 기준
2) 5년물 기준
자료: Markit

2.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업권별로 상이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⁹⁾(RBC비율, Risk-Based Capital Ratio)은 2022년말¹⁰⁾ 205.9%로 전분기말(205.6%)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I-9).

그림 I-9.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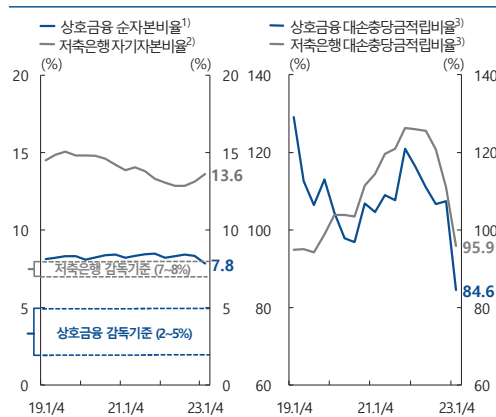


주: 1)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2)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보험회사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7.8%로 자본이 감소하며 2022년 3/4분기말(8.4%) 대비 0.6%포인트 하락하였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고정이하여신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하여 2022년 3/4분기말 대비 22.2%포인트 하락한 84.6%를 기록하였다.¹¹⁾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대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 3/4분기말(12.9%)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13.6%를 기록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1년 4/4분기(126.2%)를 정점으로 매 분기 하락하면서 2023년 1/4분기말 95.9%를 기록하였다(그림 I-10).

그림 I-10.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복원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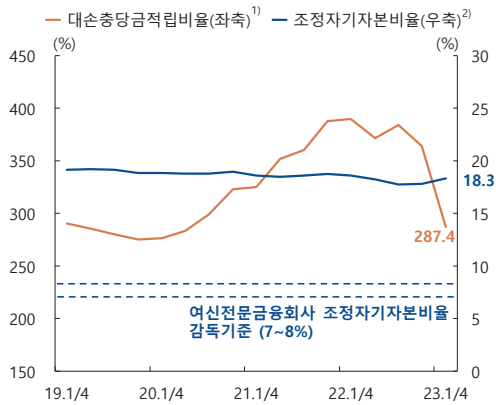


주: 1) 감목기준 2%(새마을금고 4%, 농협 5%)
 2)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목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
 3)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자산증가세 둔화 및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¹²⁾의 영향으로 2022년 3/4분기말(17.8%)에 비해 상승한 18.3%를 기록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현재 287.4%로 2022년 3/4분기말(384.0%) 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¹³⁾(그림 I-11).

9)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다.
 10) 2023년부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가 변경(RBC → K-ICS)되면서 자본적정성 관련 공시 기한이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분기 종료후 3개월(연 결산의 경우 4개월)로 1개월 연장됨에 따라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수치는 RBC제도 하의 2022년말 기준이다.
 11) 2023년 1/4분기말 상호금융조합의 대손충당금 잔액(17.3조원)은 2022년 3/4분기말 대비 16.2% 증가한 반면, 고정이하여신잔액(20.5조원)은 46.6% 증가하였다.
 12) 부동산PF 등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캐피탈사는 손실흡수력 제고 및 레버리지배를 관리(규제수준 24년 9배, 25년 이후 8배)를 위해 2023년 1/4분기중 유상증자, 계열사 흡수합병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였으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도 자본적정성 관리 등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림 I-11. 여신전문금융회사 복원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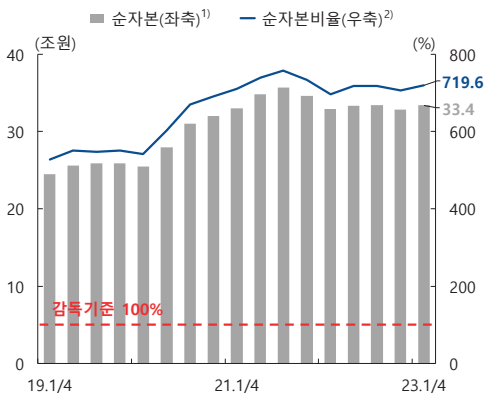
주: 1) 대손총당금/고정이하여신(총채권 기준)

2)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신용카드회사 8%)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719.6%로 2021년 1/4분기말 이후 700%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I-12).

그림 I-12. 증권회사 복원력 지표



주: 1)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

2)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은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저하되었으나, 여전히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부동산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상기 업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총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3) 업권별로 나누어보면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2023년 1/4분기말 619.6%로 고정이하여신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손총당금(대손준비금 포함)이 소폭 증가에 그치며 2022년 3/4분기말 대비 216.9%포인트 감소하였고, 캐피탈회사의 경우 123.2%로 대손총당금 적립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여신이 더 크게 늘어나며 2022년 3/4분기말 대비 30.4%포인트 감소하였다.

참고 6.

바젤Ⅲ 규제체계 하의 주요국

완충자본제도 운용사례 및 시사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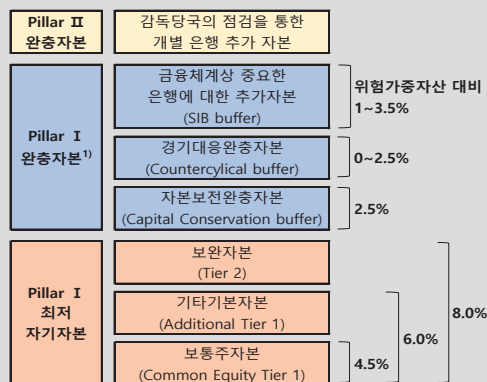
최근 주요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하향 조정하였던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적립비율을 재인상하며 향후 발생가능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고 있다. 금년 들어 발생한 SVB 등 일부 은행의 파산사태 또한 취약한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하에서 은행 손실흡수능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하에서는 바젤Ⅲ 규제체계 중 자본적정성 규제와 최근 주요국의 완충자본²⁾ 운용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바젤Ⅲ 자본규제체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에서 제정하는 바젤 규제체계는 글로벌 은행의 복원력 제고를 위한 규제·감독기준으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바젤 I 및 II를 거쳐 현재의 바젤Ⅲ로 개편되었다.³⁾ 바젤Ⅲ 자본규제는 Pillar I, II, III로 구성⁴⁾되어 있으며, 기존의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해 다양한 완충자본 규제가 추가되었다.

규제자본 적립요건을 살펴보면 바젤Ⅲ는 기본적으로 은행 보유 자산에 내재된 리스크(위험가중자산) 대비 복원력(자기자본)을 일정 수준(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Pillar I 최저자기자본규제). 이에 더해 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여 배당금 등 이익금의 재량적 배분을 억제하고 자본 재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미래의 위기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손실을 흡수하고(자본보전완충자본, 이하 'CCoB'), 신용 사이클에 따른 경기순응성을 완화⁵⁾하며(경기대응완충자본, 이하 'CCyB'),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⁶⁾의 복원력을 제고(G-SIB 및 D-SIB 추가자본)하기 위해 손실흡수능력이 가장 높은 보통주자본(CET1)을 추가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Pillar I 완충자본). 또한 감독당국은 개별 은행의 리스크 특성에 따라 추가 자본을 부과할 수 있다(Pillar II 완충자본).

바젤Ⅲ 규제체계에 따른 규제자본



주: 1) 보통주자본(CET1)으로 적립
자료: BCBS

- 1) 본고는 백운아·김지은(금융규제팀)이 작성, 서평석(금융안전연구부장)·권준석(금융규제팀장)이 검토하였다.
- 2) 본고에서는 최저자기자본규제 이상으로 부과되는 모든 규제자본을 완충자본으로 통칭하였다.
- 3) 1980년대 후반 바젤 I 이 도입된 이후 획일적인 위험가중치 적용에 따른 규제회피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바젤Ⅱ로 개편되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편된 바젤Ⅲ는 은행 자기자본의 질·양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험 인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시스템 리스크 및 상호연계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완충자본과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였다. 또한 자본적정성 규제 이외에 유동성 관리를 위한 기준과 가액익스포저 한도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4) 바젤Ⅲ에서는 감독대상 은행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인 Pillar I 과 개별 은행의 리스크 관리 및 감독당국의 점검에 해당하는 Pillar II, 그리고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공시에 해당하는 Pillar III를 통해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고자 한다.
- 5) 금융당국은 신용팽창기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된다고 판단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의 축적 정도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여 경기 과열을 방지하고 신용축소에 부과 해제를 통해 신용 경색을 방지하고자 한다.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 6)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이하 'G-SIB') 및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이하 'D-SIB')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22년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감독대상 은행은 최저규제자본 8.0%에 더해 CCoB 2.5% 및 국가별 감독당국이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설정한 CCyB⁷⁾ 비율을 적립해야 하며 G-SIB 및 D-SIB 선정여부와 Pillar II 조치에 따른 개별 추가자본 적립 의무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은행은 Pillar I, II에 따른 자기자본규제 비율을 준수하는 가운데 은행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한 내부필요자본비율을 결정·적립하며 이는 통상 규제자본비율을 상회한다.

최근 주요국의 완충자본규제 운용 현황 및 평가

양(+)의 경기중립비율 설정

최근 주요국에서는 그간 운용 경험 및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상시 최적 CCyB 적립비율(이하 ‘경기중립비율’)을 기존의 0%에서 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위기 시 즉시 부과 해제가 가능한 CCyB 규제의 활용성 증대 의도를 바탕으로 경제·금융사이클의 모든 국면에서 은행이 이익분배에 신중하고 자본비율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⁸⁾

BCBS는 CCyB를 포함한 완충자본규제의 효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이 재량에 따라 양(+)의 경기중립비율을 설정하는 데 따르는 이점을 인식하고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⁹⁾ BCBS는 양(+)의 경기중립비율을 도입한 금융당국 사례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 발생 시에도 완충자본을

보유하는 것이 은행에 이롭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기 발생으로 인한 손실흡수 과정에서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자본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복원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때 금융당국이 완충자본 적립의무를 명시적으로 해제하면 이러한 평판리스크를 해소시켜 급격한 신용공급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

영국은 CCyB제도에 양(+)의 경기중립비율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로 2015년 11월 동 비율을 1%로 설정하였으며, 2019년 말에는 2%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시스템 리스크 측정의 어려움 및 CCyB 비율 결정 후 이행까지의 시차(12개월)를 고려하여 CCyB 비율을 사전에 인상하는 것이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

스웨덴은 2021년 3월부터 CCyB의 경기중립비율을 2%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에는 코로나19 시기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스웨덴은 코로나19 발생 전에 2.5%로 운용하던 CCyB 비율을 2020년 3월에 0%로 인하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금융시장 변동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스웨덴은 (1) 시스템 리스크가 통계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 (2) CCyB 비율 결정 후 이행까지의 시차, (3) 갑작스러운 자본 축적(주식 발행 등) 보다 점진적인 자본 축적(배당금 보류 등)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완충자본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였다.

호주는 2021년 11월부터 CCyB의 경기중립비율을 1%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자본규제 체계 개편의 일환이었다. 동 개편은 바젤 III 규제체계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강건한’

7) 금융위는 우리나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2024.5월부터 CCyB 적립수준을 0%에서 1%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정」(금융위 보도참고자료, 2023년 5월 24일)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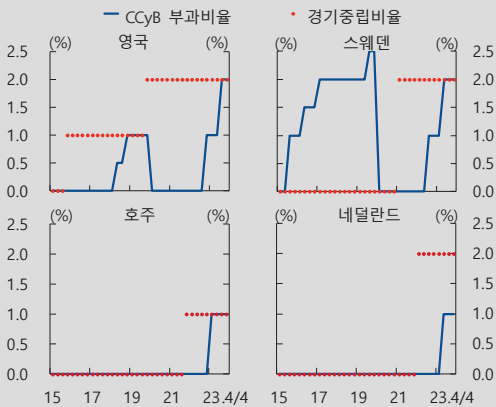
8) ECB(2023), “A positive neutral rate for the CCyB – state of play in the banking union”, Macroprudential Bulletin, Issue 21

9) 자세한 내용은 BCBS 뉴스레터(BIS, 2022년 10월 5일), 「Early lessons from the Covid-19 pandemic on the Basel reforms」(BIS, 2021년 7월) 및 「Evaluation of the impact and efficacy of the Basel III reforms」(BIS, 2022년 12월)를 참고. 다만 동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CCyB의 활용 사례가 풍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CCyB 규제의 단독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준의 자본을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중립비율을 인상하였다.

네덜란드는 2022년 2월부터 CCyB의 경기중립비율을 2%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양(+)의 CCyB 설정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기중립비율을 2%로 설정한 것은 예상치 못한 충격 발생 시 필요한 인하 여력과 자본적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양(+)의 경기중립비율 도입 이후 GDP 대비 신용 지표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 비금융부문 및 금융시장 관련 변수 등도 CCyB 비율 조정 시 고려지표에 추가되었다.

주요국의 CCyB 부과비율¹⁾ 및 경기중립비율



주: 1) 2023.4월말 현재 공표·예정된 부과비율을 감안하여 작성
 자료: 각국 금융당국

기타 완충자본제도 도입·운용

한편 캐나다, 미국 등은 Pillar I을 통해 포착되지 않는 시스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 은행에 적용되는 기타 완충자본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8년 6월부터 국내안정성완충자본(Domestic Stability Buffer, 이하 'DSB')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는 자국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3%로 설정되어 있다. DSB 부과 비율은 반기별(6월, 12월) 또는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의 0~4%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CCyB와 마찬가지로 인상 결정 후 시행까지 시차가 있는 반면 인하 시에는 즉각 반영된다. 가계 및 기업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외부시스템 관련 취약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취약성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DSB를 인상하고, 취약성이 감소하거나 위험이 현실화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용공급을 유지시키기 위해 DSB를 인하한다.

미국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별 은행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 이하 'SCB')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SCB는 매년 미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마다 다르게 결정¹⁰⁾되며, 적립 규모는 부정적 시나리오 상황에서 요구되는 자본과 향후 1년간 지급 예정인 배당금의 합으로 계산된다.

유로존의 완충자본제도는 CCoB, CCyB 등을 포함하는 CBR(Combined Capital Buffer), P2R(Pillar II Requirement) 및 P2G(Pillar II Guidance)로 구분된다. P2R은 Pillar I으로 포착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하여 은행이 파산을 피하고 모든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P2G는 은행이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개별 은행에 예상되는 자본손실비율에 따라 최대 4.5%(2021년 기준)의 추가 자본 적립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ECB는 코로나19 발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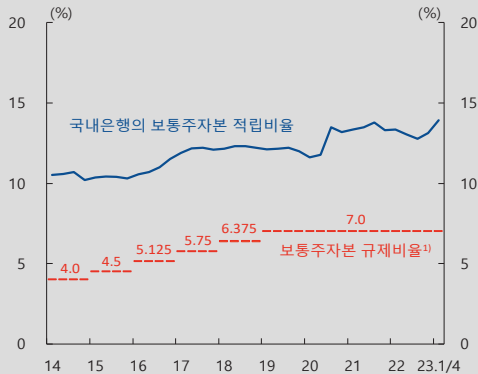
10) 2022년 기준 최저 2.5%(뉴욕멜론, 찰스슈왈프, 스테이트스트리트 등)부터 최대 9%(크레디트 스위스)까지 부과되었다.

다른 자본규제 완화조치¹¹⁾가 은행이 위험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공급을 지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였다.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자본여력

국내은행(은행지주 및 은행)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바젤Ⅲ 이행을 시작한 2013년 이후 대체로 상승하여 2023년 1/4분기말 현재 13.9%¹²⁾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내 규제자본 비율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이다. 향후 국내 CCyB 비율이 1% 부과되는 경우에도 모든 기관에서 규제비율과 실제 자본비율의 차이인 자본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¹³⁾ 다만 은행지주의 자본여력은 3.1~4.7%포인트 수준이고 외국계은행은 8.4~18.1%포인트로 은행 그룹별 편차가 존재한다.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 적립 추이



주: 1) 바젤Ⅲ의 단계적 도입에 따라 보통주자본 규제비율이 최저규제비율 4.5%와 CCoB 2.5%를 합친 7.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다. (D-SIB은 1% 추가적립)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CCyB 규제비율 상향에 따라 은행들은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 여타 은행 및 주요국과의 수준 차이 등을 감안하여 자본여력을 얼마나 보유할지 결정할 것이다. 자본여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은행은 배당금을 줄이거나 위험기중자산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최근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고려 등 자본적정성 제도 정비 계획¹⁴⁾을 발표하고 CCyB 비율을 1%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은행의 복원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CBS 및 주요국의 완충자본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양(+)의 경기중립비율 개념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은행의 자본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Pillar I을 통한 규제자본적립 외에도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와 같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개별 은행의 리스크 특징에 부합하는 선별적 자본적립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바젤Ⅲ의 완충자본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은행의 복원력을 더욱 향상시킬 경우 대외 평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및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기타기본자본(AT1) 및 보완자본(Tier2)으로 보통주자본(CET1) 적립요건을 부분 대체하여 P2R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CBR도 완화하였으며 감독당국에서 은행의 자본비율이 P2G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12) 자본비율이 월등히 높은 카카오뱅크(34.1%)와 아직 바젤Ⅲ 완전 적용대상이 아닌 토스뱅크를 제외하고 은행지주 및 은행 총 26개 기관을 기준으로 단순평균하였다.

13) 개별 은행에 부과되는 CCyB 비율 계산 시 엄밀하게는 각 은행의 국가별 민간부문 신용 익스포저에 대해 해당국에서 부과 중인 CCyB 수준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나 본고에서는 자본여력이 1%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단순하게 계산하였다.

14)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금융위·금감원 보도참고자료, 2023년 3월 16일)을 참고.

참고 7.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¹⁾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보험회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그간 자본관리 수단으로 자본성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크레디트 스위스의 정리과정 중 조건부신증자본증권이 전액 상각²⁾되면서 자본성증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국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 바 있다.

자본성증권은 금융기관이 배당 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영구채로 발행되는 신증자본증권과 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만기 5년 이상으로 발행되는 후순위채로 구분³⁾된다. 또한, 특정요건(trigger event) 발생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이러한 조건이 없는 비조건부자본증권으로 나뉜다.

이하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 현황 및 잠재리스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자본성증권 구분 및 주요 특징

	신증자본증권	후순위채
만기	30년 이상(영구)	5년 이상
이자(배당)지급	재량	의무
회계처리	자본(자본증권)	부채(채무증권)
상각/전환 여부	조건부 ¹⁾ (특정요건 발생시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 비조건부 ²⁾ (상각 또는 전환 조건 없음)	
자본유형	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	
변제순위	후순위채보다 후순위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후순위

주: 1) 은행은 2013년 12월 도입된 바젤III기준에 따라 조건부자본요건으로 발행된 신증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자본으로 인정
2) 2022년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 발행 자본성증권은 모두 비조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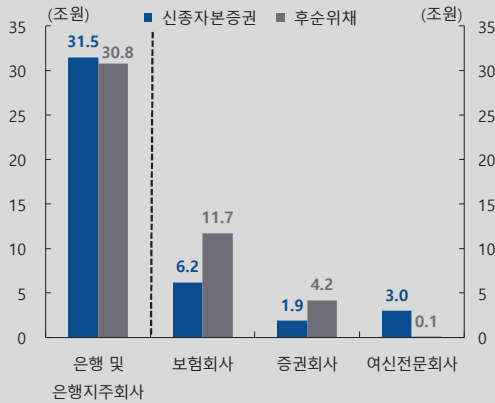
자본성증권 발행 현황

2022년말 현재 국내 전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잔액은 신증자본증권 42.6조원, 후순위채 46.8조원 등 총 89.4조원이다. 발행주체별로 살펴보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발행잔액이 총 62.3조원⁴⁾이며, 그 중 신증자본증권(31.5조원)과 후순위채(30.8조원)가 각각 절반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고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레버리지비율 규제(2018년 도입) 준수를 위한 기타기본자본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의 신증자본증권 발행이 꾸준히 늘고 있다.⁵⁾

- 1) 보고는 유재원·박서정·홍준의(은행리스크팀)·권윤정·안준기(비은행리스크팀)이 작성, 이종한(금융리스크분석부장)·박장호(은행리스크팀장)·신준영(비은행리스크팀장)이 검토하였다. 보고에서는 국내 금융기관 중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보험회사의 신증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중심으로 자본성증권의 발행 현황과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다.
- 2) 2023.3.19일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은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행한 약 160억프랑(172억달러) 규모의 조건부신증자본증권(AT1)을 완전 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
- 3) 규제목적상 자본성증권 자본유형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바젤III기준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어 발행하는 신증자본증권은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 1)으로, 후순위채는 보완자본(Tier 2)으로 분류된다. 보험회사가 발행한 신증자본증권은 기본자본,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며, 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신증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구분 없이 각각 영업용순자본 및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 4) 2022년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은행 등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의 잔액은 6,530억달러이다(블룸버그).
- 5) 2022년말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잔액은 2017년말(신증자본증권 8.8조원, 후순위채 11.9조원으로 총 20.7조원)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해당 기간중 은행은 주로 후순위채(16.6조원 증가)를, 은행지주회사는 신증자본증권(16.8조원 증가)을 중심으로 자본성증권을 발행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잔액은 2022년말 현재 27.1조원으로 보험회사(17.9조원)⁶⁾가 가장 많으며, 증권회사(6.1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3.1조원) 순이다. 증권 종류별로는 후순위채가 전체 자본성증권의 60%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신증자본증권에 비해 후순위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 자본규제상 기본자본에 대한 별도의 규제비율이 없어⁷⁾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증자본증권보다 보완자본이더라도 발행금리가 낮은 후순위채권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⁸⁾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잔액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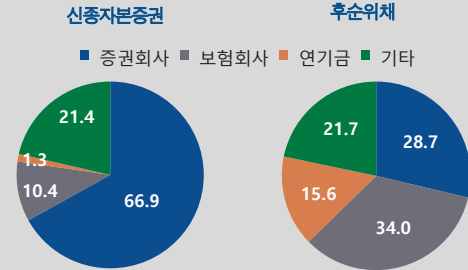


주: 1) 2022년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사업보고서, 경영공시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성증권의 투자자별 보유 규모를 살펴보면, 신증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주로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후순위채는 보험회사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성증권 유형별로 투자자 분포가 상이한 점은 보험회사 등에 비해 위험회피성향이 낮은 증권

회사가 후순위채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크나 수익률이 높은 신증자본증권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내 금융기관 발행 자본성증권의 투자자 현황¹⁾



주: 1) 2022년말 국내발행 기준으로 각 자본성증권에서 해당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잠재리스크

자본성증권은 금융기관 부실시 공적자금을 통한 지원(bail-out)에 앞서 투자자의 손실분담원칙(bail-in)을 통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이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이에 자본성증권 관련 잠재리스크를 발행 금융기관 및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조기상환 여부에 따른 자본비용 관리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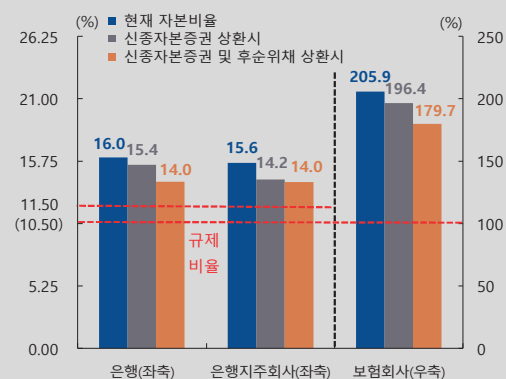
발행 금융기관은 기발행 자본성증권에 대한 조기상환⁹⁾, 차환발행, 대체수단 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6) 보험회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잔액은 2017년말 6.0조원에서 2022년말 17.9조원으로 약 세 배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중 보험회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액이 크게 확대(2021년 2.9조원 → 2022년 5.7조원)되었는데, 이는 금융당국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전 발행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와 K-ICS 시행을 앞둔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요가 맞물린 결과이다.
 7) 자본을 계층화하여 계층별 자본비율(보통주/기본/BS총자본비율)이 적용되는 은행과 달리 보험회사는 K-ICS비율(구 RBC비율)에 대한 규제 및 권고기준(각각 100%, 150%)만 적용되고 있으며, 기본자본비율은 경영실태평가의 계량평가지표로만 활용되고 있다.
 8) 신증자본증권은 변제순위의 후순위성, 30년 이상의 명목 만기, 이자 미지급 가능성 등으로 후순위채 대비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9) 자본성증권은 대체로 발행 5년 혹은 10년 후 조기상환을 옵션으로 하여 발행되며, 자본비용 규제 준수를 위한 자본성증권 발행 수요가 높은 금융기관은 시장의 기대와 투자자와의 신뢰 유지를 위해 조기상환 시기 도래시 대부분 자본성증권의 차환발행 등

어지지 않을 경우,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조기상환 시점에서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이 여의치 않은 금융기관은 높은 발행금리 등 비우호적인 조건으로 자본성증권을 차환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본성증권에 대한 수요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차환발행 대신 현금성자산 등을 활용하여 상환¹⁰⁾함으로써 자본적정성 유지 뿐만 아니라 유동성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성증권 전체에 대한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자본성증권 상환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정도를 시산해 보았다. 분석 결과, 자본확충 관련 자본성증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보험업권의 자본비율이 더 크게 하락하며, 특히 자본비율이 규제기준(100%)을 하회하는 일부 보험회사들은 리스크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기관 자본성증권 상환시 자본비율¹⁾ 하락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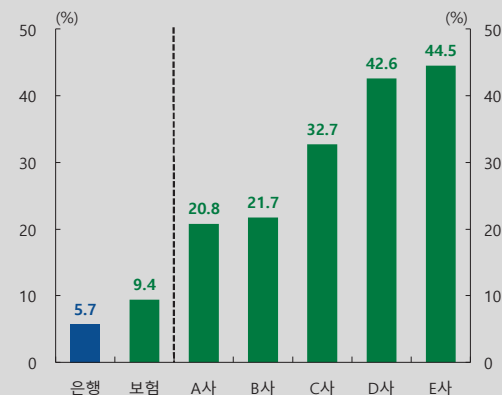
주: 1) 2022년말 기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BIS총자본비율(D-SIB: 11.5%, 이외는 10.5%), 보험회사는 RBC비율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이자(배당)지급 부담 가중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에 따른 이자(배당)지급액 증가는 발행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통해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중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이자(배당)부담률을 보면, 은행권이 5.7%, 보험업권이 9.4%로, 은행권에 비해 보험업권의 이자(배당)부담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세전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이자(배당)부담률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기관 자본성증권 이자(배당)부담률¹⁾²⁾



주: 1) 자본성증권 관련 이자(배당)지급액/(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 자본성증권 관련 이자(배당)지급액)으로 정의(2022년 기준)

2)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보험회사는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을 통해 조기상환을 실시한다.

10) 2022년 11월 1일 흥국생명은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2017년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조기상환을 미 실시(골옵선 미행사)할 예정임을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7일 조기상환 실시(골옵선 행사)로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 등으로 조기상환한 후 대주주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자본성증권은 특정요건(trigger event) 발생시 원금이 상각되거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리스크가 부각된 사례가 있으나,¹¹⁾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원금 상각 및 이자미지급 요건의 엄격성, 양호한 경영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련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원금 상각 가능성을 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발행된 자본성증권이 모두 비조건부여사 원금 상각 가능성은 없으며,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원금 상각과 관련된 특정요건¹²⁾이 다른 나라¹³⁾에 비해 엄격한 데다 금융당국이 국제기준과 동일한 보통주 우선의 손실보전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원금 상각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이자 미지급은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사전에 지정된 경영성과 및 재무구조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지급이 제한¹⁴⁾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기관은 최근 자본성증권을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나, 금융경제 여건에 따라 발행 금융기관과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본성 강화를 위해 우선 보통주 자본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자본성증권 발행은 보통주를 통한 자본확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자본성증권은 발행시 부여되는 콜옵션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스텝업(step-up) 조항¹⁵⁾이 조기상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구성하는 여타 항목에 비해 자본성이 열위에 있다. 이에 자본성증권의 영구채 성격을 강화하여 자본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고객 투자자가 앞서 살펴본 자본성증권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성증권에 내재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자본성증권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11) 금년 3월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었으며, 2016년 2월에는 도이치뱅크의 대규모 적자 등으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미지급 우려가 부각된 바 있다.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발행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 은행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와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가 해당한다. 2022년말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3.5%, 12.6%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선정기준(2.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13)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활발한 유럽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 5.125%(Low trigger 기준) 등이 특정요건으로 사용된다.

14) 2022년말 일부 보험회사가 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 지정한 조건 중 하나인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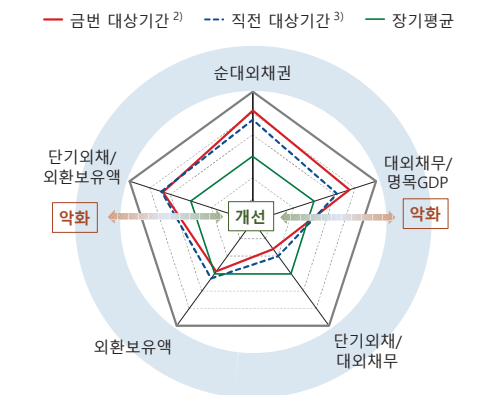
15) 채권발행 이후 일정기간(통상 5~10년)이 경과하면 금리를 상향조정하는 조항으로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채권 발행시 종종 적용된다.

II. 대외지급능력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외환보유액이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대외채무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소폭 하락하였다. 순대외채권이 감소하였으나 직전 대상기간 대비 감소세는 둔화되었다. 다만, 명목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다소 상승하였다(그림 II-1).

그림 II-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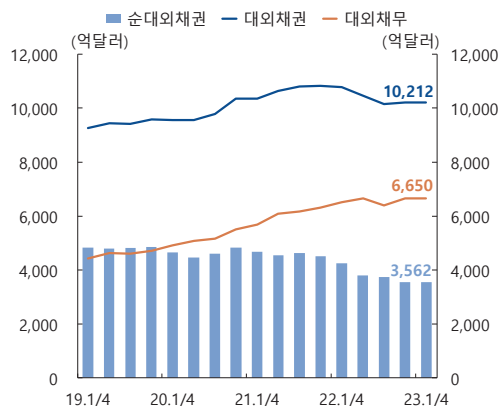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1/4분기말(외환보유액은 2023년 5월말)
 3) 2022년 3/4분기말
 자료: 한국은행 시산

순대외채권 감소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 - 대외채무)은 2023년 1/4분기말 3,562억달러로 전년도 3/4분기말 대비 180억달러 감소하였다. 다만 직전 대상기간(2022년 1/4분기말 대비 3/4분기말, -511억달러) 대비 감소세는 둔화되었다(그림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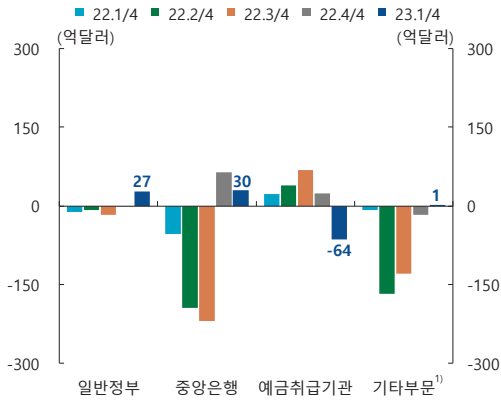
그림 II-2. 순대외채권¹⁾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권은 금년 1/4분기말 1조 212억달러로 전년도 3/4분기말 대비 64억달러 증가하였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와 중앙은행은 해외증권투자 확대 및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각각 26억달러 및 94억달러 증가했다. 예금취급기관은 40억달러 감소하였는데 주로 국내은행이 SVB·CS 사태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대외 외화 조달 및 운용을 축소한 데 기인한다. 기타부문은 무역신용 감소 등으로 15억달러 감소하였다(그림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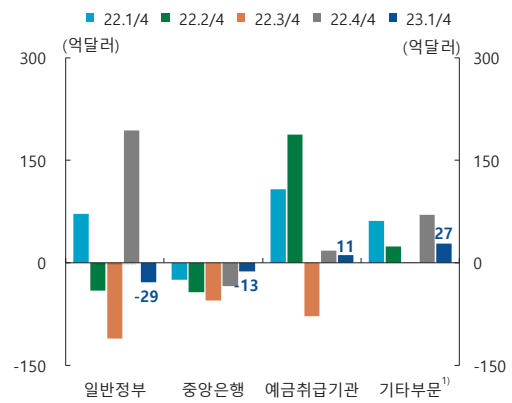
그림 II-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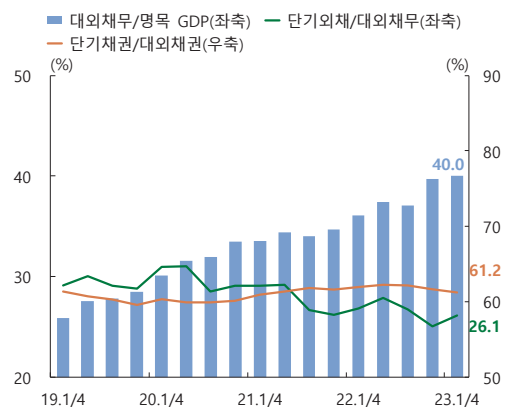
대외채무는 2023년 1/4분기말 6,650억달러로 전년도 3/4분기 대비 245억달러 증가하였다. 일반정부는 외국인의 국공채 투자 증가 등으로 165억달러 증가한 데 비해 중앙은행은 통안증권 발행물량 축소(기간중 통안증권 순발행 -0.9조원) 등으로 47억달러 감소하였다. 3월중 차익거래유인 상승에 따른 외은지점의 본지점차입 확대 등으로 예금취급기관은 29억달러 증가하였다. 기타부문은 기업의 외화증권발행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채무상품직접투자 확대도 지속되어 98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4).

그림 II-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40.0%로 전년도 3/4분기(37.1%) 대비 상승하였다. 대외채무중 단기외채의 비중은 26.1%로 전년도 3/4분기(26.8%) 대비 하락하였다. 대외채권중 단기채권 비중은 61.2%로 전년도 3/4분기(62.2%) 대비 하락하였다(그림 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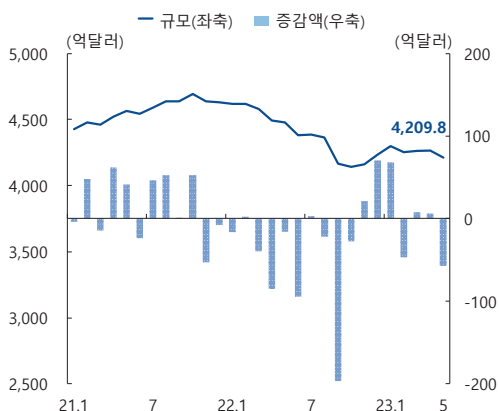
그림 II-5. 단기 대외 채무·채권 비중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증가

2023년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209.8억달러로 지난해 4/4분기중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 증가 등으로 늘어났다가, 금년 들어 소폭 감소하였다(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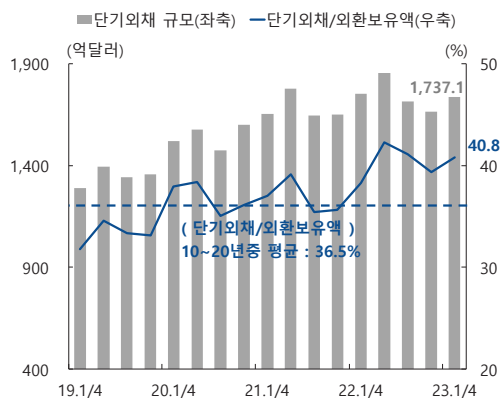
그림 II-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¹⁾



주: 1) 규모는 월말, 증감액은 월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3년 1/4분기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0.8%로 전년도 3/4분기말(41.1%) 대비 0.3%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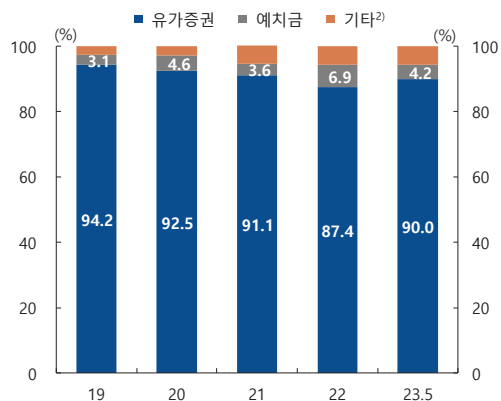
그림 II-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23년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90.0%) 및 예치금(4.2%)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국채,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8).

그림 II-8. 외환보유액 구성¹⁾



주: 1) 연월말 기준
 2) 금, SDR 등
 자료: 한국은행

Ⅲ. 금융시장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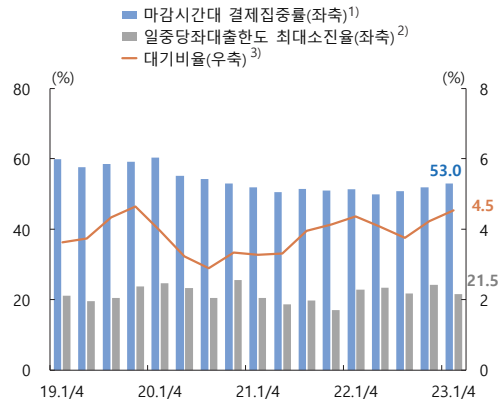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 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3년 1/4분기중 548.0조원으로 지난해(524.3조원)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23년 1/4분기중 각각 21.5%, 4.5%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 결제금액 중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 비중은 1/4분기중 53.0%로 전년동기(51.2%)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II-1).

그림 III-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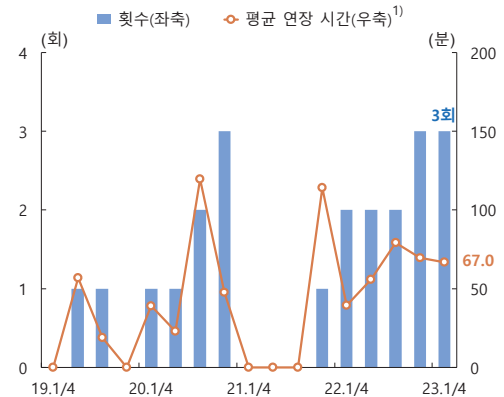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 중 16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3)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제외)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은금융망 마감시간 연장은 2023년 1/4분기중 3회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부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것이었다(그림 III-2).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주: 1) 해당 기간 총 연장시간/연장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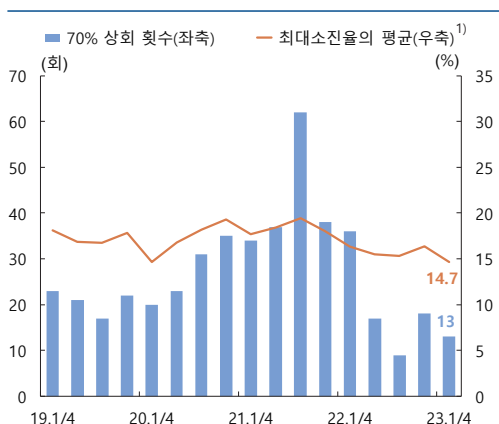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3년 1/4분기중 101.2조원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증가 등으로 지난해(99.3조원)보다 늘어난 가운데 관련 결제리스크는 원활히 관리되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를 보면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¹⁾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1/4분기중 13회로 전년 동기(36회)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을 평균은 2023년 1/4분기중 14.7%로 전년 동기(16.3%)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었다(그림 III-3).

그림 III-3.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 1) 해당 기간 중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증권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 규모는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동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3년 1/4분기중 259.7조원으로 기관간 RP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236.8조원)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1/4분기중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장외주식기관투자자 거래는 모두 기준시한(각각 16:00, 17:00, 16:50) 이전에 결제가 모두 완료되었다(표 III-1).

표 III-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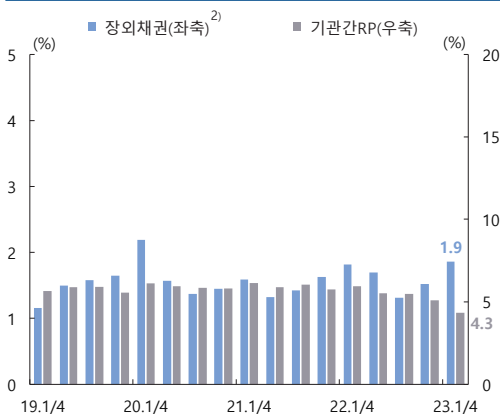
	기준시한 ²⁾	비중(%)				
		2022년				2023년
		1/4	2/4	3/4	4/4	1/4
장내주식	16:00	-	-	-	-	-
장내국채	17:00	-	-	-	-	-
장외주식 기관투자자	16:50	-	-	-	-	-

주: 1) 해당 기간 중 기준시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기준
 자료: 한국은행

1)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지정시점(오전 11:00)에 결제되므로 금융기관이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리스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참가기관들이 미결제순이체액의 상한, 즉 순이체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의 경우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 비중이 2023년 1/4분기중 각각 1.9% 및 4.3%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I-4).

그림 III-4. 분리결제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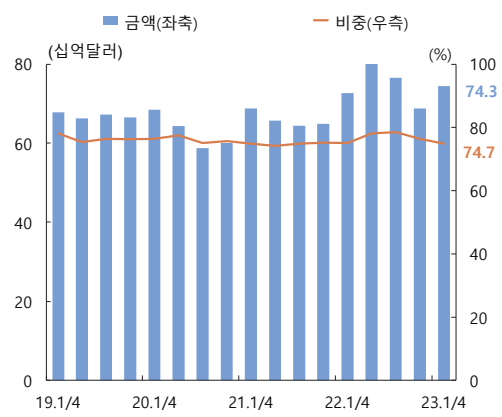
주: 1)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 결제금액 중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 비중
2) 연쇄결제 차감 후 최종결제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외환결제시스템²⁾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시스템)³⁾의 결제액은 2023년 1/4분기중 일평균 743.3억달러로 지난해(748.4억달러)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2023년 1/4분기중 74.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외환거래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II-5).

그림 III-5. CLS시스템 이용 금액¹⁾ 및 비중²⁾



주: 1) 분기중 일평균,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2)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2) 외환결제는 은행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국내 외환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결제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3)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각 국가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 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CLS는 동 시간대에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 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결제됨을 의미한다. 현재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18개 CLS 결제통화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